

# 2천년대 쾌적환경조성에 선도기업으로 앞장선다

■ 편집부

**간밤**에 내린 눈으로 서울은 교통체증을 일으켰었는데, 부강으로 향하는 좁다란 도로는 흔적도 없이 보송거렸다. 연꽃이 많아서 지명을 芙江이라 했을까. 아담한 곳이다. 2월의 현장은 한양화학(株) 부강공장(공장장·박홍원)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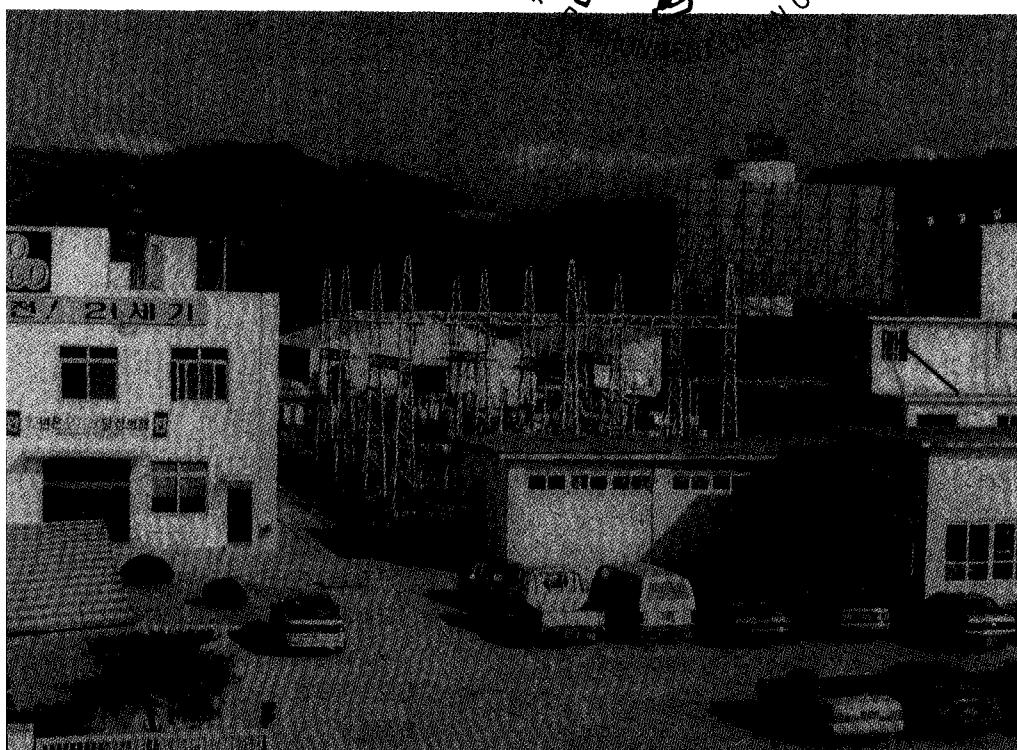
이곳은 지난 '66년 대한프라스틱이 국내최초로 PVC를 생

▼ ECO-2000 운동의 심볼마크



산했던 현장이다. PVC Resin을 생산하던 부강공장은 '84년 진해공장으로 PVC TILE 서비스가 이설됨에 따라 프라스틱 경질·연질 가공공장으로 전환,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고급 바닥장식재인 골드륨, 단열과 방음이 뛰어난 프라스틱 창틀재인 골든샤시, 중보행용 상재류인 골드롱·골드스트롱, 온돌용 XL-PE 파이프 등



을 해 설치할  
폐가스 소각로는  
폐DOP 발생량을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산업 폐기물을  
처리비용 감소 및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 주요 생산품목이다.

현장을 찾아간 그날도, 5만여평의 공장에서는 4백 70여명의 가족들이 바쁜 일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올해 매출목표액은 1천 4백억원이라고 한다.

우선 대기 2종규모인 이곳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내역을 살펴보면 멀티싸이크론이 3기, 미스트컬렉터 4기, 전처리시설 1기, 백화터 42기가 있다.

이외에도 흡착탑(활성탄)8기, 오수정화시설 1식, 무동력싸이크론 7기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환경관계 투자실적이다. 먼저 미스트컬렉터 노후시설교체 및 용량증설에 2억 7천만원을, 보일러연료를 B-B유에서 경질유로 변경하는데 2억 3천 2백만원, 작업환경개선과 방지시설 증설에 5억 3천만원 등 총 8억 2천 3백2십만원이 환경관리에 투자됐다.

올해엔 10억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 상반기중에 폐기물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소각로를 설치하는

#### ◆ 대기관리 data(보일러 설비)

항목	배출농도	당사기준	법정기준
SOx	890	980	1950
NOx	90	110	250
분진	92	120	200
Smoke	1°	1°	2°이하

#### ◆ 생산공정 대기관리 data

항목	배출농도	당사기준	법정기준	비고
분진	15 3.2	30	120mg/m <sup>3</sup> 200	Mist Collector 직접연소시설

(에멀젼: 유화제)

전처리설비→보일러→FAN→

M/C 256m<sup>3</sup>/min→Stack

것을 비롯해 폐기물보관소 보완에 3천 5백만원이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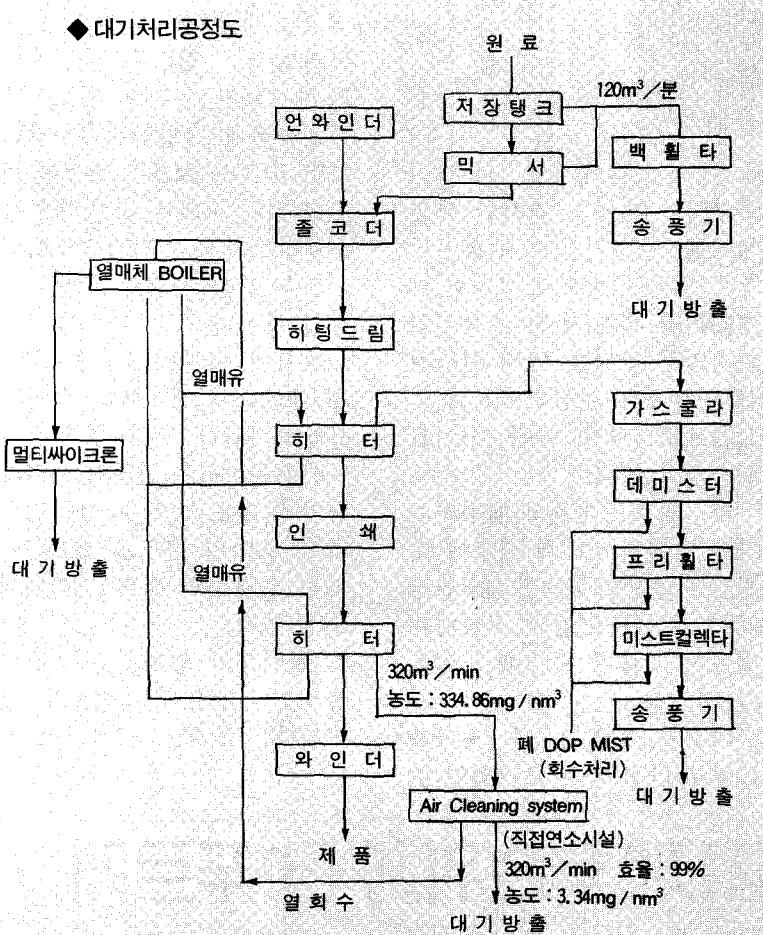
또한 방지시설 부대설비 및 노후시설 교체비로 6천 2백만원을 책정해 놓았으며, 지난해에 이어 보일러 및 연료교체에 2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특히 4억원을 투자, 폐가스연소를 위한 Incinerator를 독일로부터 수입해 설치한다고 한다.

김성환 환경관리인의 보충설명에 따르면, 그동안은 골드롭 제조공정상 대기오염배출시설(건조시설)에서 폐DOP를 미스트컬렉터에서 포집한 후 특정산업폐기물로 위탁처리해 왔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업체와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폐기물처리업체 및 재생이용업체의 확보와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

그래서 위탁처리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가스 소각로를

#### ◆ 대기처리공정도





좌로부터 김명규·김종화(과장)·김성환 환경관리인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 DOP( $C_{24}H_{38}O_4$ )를 소각시킴으로서 폐 DOP 발생량을 80%까지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소각시 배출되는 폐 DOP Mist(이것은 위험물관리법상 제 4류에 속한다)가 소각로에서 거의 제거되기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도도 감소시킨다. 따라서 배출가스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연소시 발생되는 열을 기존 열매체 보일러에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본사는 이렇듯 과감한 예산 책정과 환경기술실(부장·이종훈)팀을 주축으로 철저한 환경관리를 하는 한편 효율적인 환경영무 추진을 위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환경의식고취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환경회보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을 비롯해 년 2회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환경 표어 제안을 모집해 시상하는 일등이 그 좋은 예라 할수 있겠다.

이같은 움직임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모기업인 한

국화약그룹의 ECO-2000 운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운동은 한국화약 그룹이 지구환경시대를 맞아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 창조에 선도적 기업으로 앞장서며 환경보호활동에 적극 참여, 환경보전주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 및 이미지를 확립한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환경보전운동을 경영이념으로 승화발전시키자는 배경에서 비롯된, Environment Clean Operations 및 Ecology of 2000's를 지향하는 이 기업운동은 △환경관련 신규사업전개 및 기술개발추진 △기존 및 신규사업장의 철저한 환경관리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계몽운동전개로 집약된다. 말하자면 ECO-2000은 그룹이 몸 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경영이념 구현을 위한 사회지향적인 운동인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PRO-2000을 극심한 경쟁속에서 생존·성장하기위한 그룹내부의 경영 혁신운동이라는 김종화 환경과장의 설명으로 인해 정문입구에서 보았던 「PRO-2000」이라는 입각판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었다.

2천년대의 풍요로운 생활환경창조에 선도적 기업으로 앞장선다는 결의로 매진하고 있는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 우리위해 더 맑게 후손위해 더 푸르게